

일제하 濟州島 기업가의 공장·회사 설립과 경영활동*

- 南洲 康性益과 牛公 黃舜河를 중심으로 -

고 광 명**

요 약

이 연구는 일제하 제주도에 본점을 둔 공장 및 회사설립에 공헌한 기업가를 대상으로 경영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제주자본의 성격과 특질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기업가별 경영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지역의 공장설립은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제주지역의 풍부한 해산물 원료를 가공하기 수월한 주요 항구와 연결한 지역에 많은 공장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주도민의 중심이 된 회사설립은 식민지체제 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면 제한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제주도 최초의 근대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진다. 셋째, 남주 강성익은 제주도 해산물을 가공하는 통조림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송업을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S2033).

**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

통해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우공 황순하는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해조류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주 제조업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본 식민지기 제주도에 설립되었던 공장 및 회사의 도민자본은 일인자본(日人資本)에 비해 자본 경쟁력은 열위에 있었으나 그 성격이 매우 독립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제주경제는 많은 경제적 변동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주요 색인어 : 공장, 회사, 제주경제, 기업가, 도민자본

1. 머리말

이 연구는 식민지기 제주도에 공장 및 회사설립을 하여 한국의 운수업, 주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제주도 근대경제 형성에 이바지한 南洲 康性益¹⁾과 牛公 黃舜河²⁾의 기업가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강성익은 근대 제주 지역의 사업가로서 1927년 우면 서귀리에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수업 발전에 상당한 경영성과를 이룩한 산남지역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반면 황순하는 일본인에 의해 1928년 제주면 건입리에 제주주조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1935년경에 이르러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선임되면서 주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산북지역의 기업가이다.

조선실업신용대감(1931)에 따르면 당시 제주도에는 일본인 3개사, 한국인 4개사 등 총 7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한다³⁾. 남주 강성익이 설립한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는 자본금 7천圓(불입자본금 7천圓)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신용, 지불, 업태는 C등급으로 다른 3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우공 황순하가 경영에 참여한 제주주조주식회사는 자본금 4만圓(불입자본금 1만圓)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 자본금이 그다지 적은 편은 아니었다. 신용, 지불, 업태는 B등급으로 다른 4개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

1) 康性益(1892~1968)은 호는 南洲로 제주지역의 사업가로서 1960년에는 제주 도시사를 역임하였다. 1928년 남부운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서귀포를 기점으로 모슬포와 성산포간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그는 통조림공장과 단추공장을 경영하고 陸海物産 판매업까지 운영하였다. 金榮治編著(2000),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51쪽.

2) 黃舜河(1896~1978)는 호는 牛公으로 제주지역의 사업가로서 해방 이후 五賢學園을 설립하여 육영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다년간 주조업을 운영하여 자본을 축적하는데 성공하여 제주양조(주), 鷄林자동차(주), 南星産業(주) 사장 등을 지냈다. 1939년 제주도어업조합 감사, 1941년 제주도물산(주), 제주해면기업(주), 興亞商工(주) 사장, 1943년 영화·연극 및 부대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朝日俱樂部를 설립하여 사장은 일본인 萩原駒藏이고 그는 감사역을 맡았다. 위의 책, 434쪽.

3)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 日本興信所京城支所, 18~19쪽.

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강성익과 황순하는 근대 제주경제의 실권을 장악하며 지역자본 형성과 제주도민의 운송업, 주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독보적 인물들이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일제하 제주도 공장 및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기업가활동을 파악한 연구는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한 지역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제주도에 대한 민속, 문화인류학, 사회학 분야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영사, 경제사, 기업가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제주지역 경영사의 일부분으로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간의 연구의 공백을 메우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일제하 제주도 공장 및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에서 활동한 기업가들이 어떤 철학과 사고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영위했는가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주도 기업가의 성격 규명 연구는 제주지역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기업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작업이다. 특히 일제하라는 특유의 기업 환경 속에서 활동한 한국 기업가들의 행동양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 공장 및 회사설립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일제시기 제주도 기업가별로 경영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II장에서 일제하 제주도 공장설립 현황, III장에서는 일제하 제주도 회사설립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IV장에서는 제주도 기업가별 경영활동을 논하였다.

II. 일제하 제주도 공장설립 현황

1910년대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농업과 수산업, 임업과 축산업 등 대부분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수공업의 존재가 미약했다고 보아진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의 공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고, 제조업 역시 수산물 가공이나 생필품, 공예품들의 가내수공업, 특히 죽제품, 관물 등이 농가의 부업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⁴⁾. 또한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당시 제주도의 공업수준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제주도의 공업은 유치한 수준 단계로 제주도의 자원, 즉 자연환경을 이용해 약간의 자원을 가공하는 수공업 제품들, 예를 들면 죽제품, 조선모자, 탕건, 양태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 외에 주로 자급자족적 성격을 지닌 약간의 면직물 제품이 존재했었다”고 한다⁵⁾. 이처럼 1910년대 초기 제주도의 공업은 그 수준이 미약했었고 도외로 반출되는 품목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수입대체의 목적, 자급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생산 역시 제한적이었다고 보아진다. 1910년대 중반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한 패각류나 통조림 혹은 수산물 가공업 등과 같은 제품은 주로 일본인들이 제주도에 진출하여 스스로 경영하였고 제품도 바로 일본으로 반출하였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민들에게는 고용창출 효과, 지역내부의 자본기술의 축적 등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별의미가 없었다⁶⁾.

1920년대에 들어 제주도의 공업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표 1>은 1920년대 중반 제주도 공업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자료이다. 1926년 말 현재 제주도에 34개(분공장 2개 포함) 공장이 설립되었는데, 이 중 일본인 공장은 13개, 한국인 공장은 21개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제주도 공장은 전통적 공업으로 양말, 주조제조 공장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이외에 일본인들이 제주도 진출과 함께 나타난 공장, 즉 전복·소라를 이용

4) 진관훈(1999),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32쪽.

5) 高禎鍾(1930), 『濟州島便覽』, 36쪽.

6)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322-323쪽.

한 통조림공장, 전복·소라 껍질을 조제(연마)한 단추제조 공장 등이 존재했다. 당시 특징적인 현상은 수산물 가공품, 조개단추 이외에 포고버섯을 제조하는 공장이 설립됐다는 것이다. 이들 포고버섯 공장들은 모두 일본인이 설립한 것으로 자본금이 총 59,000圓, 한국인을 포함한 노동자 수는 67명(일본인 13명)에 달했다. 연간 생산량은 20,300근이고 생산금액은 64,960圓에 이르러 다른 제조업 공장에 비해 대규모 조직을 형성한 가공공장이었다.

〈표 1〉 제주도 주요 공장설립 현황(1926년 현재)

(단위 : 圓, 다스, 상자, 판, 석, 근)

공장명	공장주	국적	자본금	공장 종류	연간 노동력			연간 생산액		
					일본	한국	합계	생산품목	수량	금액
南鮮양말직조공장	金柳贊 외	한국	5,000	양말제조업	-	35	35	면양말	10,340	21,020
濟州양말직조공장	張昌希	한국	5,000	양말제조업	-	20	20	면양말	5,200	13,520
南昌양말직조공장	文昌憲	한국	5,000	양말제조업	-	17	17	면양말	2,500	6,500
山口통조림공장	山口源藏	일본	5,000	통조림제조업	-	5	5	전복, 소라	150	7,100
竹中통조림제조소朝鮮分工場	竹中新太郎	일본	40,000	통조림제조업	8	36	44	쇠고기	2,100	42,000
大田통조림협재리분공장	太田美之吉	일본	3,000	통조림제조업	-	4	4	전복, 소라	170	1,870
大田통조림하모리분공장	太田美之吉	일본	5,000	통조림제조업	1	2	3	전복, 소라	865	10,065
金成文통조림공장	金成文	한국	4,000	통조림제조업	-	4	4	전복, 소라	250	2,900
康性益통조림공장	康性益	한국	5,000	통조림제조업	-	6	6	전복, 소라	730	8,430
大成통조림공장	黃舜河	한국	4,000	통조림제조업	-	6	6	전복, 소라	470	5,520
三成商會통조림공장	高殷三	한국	8,000	통조림제조업	-	7	7	전복, 소라	300	3,800
高見통조림성산포분공장	高見泰治	일본	30,000	통조림제조업	-	10	10	전복, 소라	1,080	13,380
玄承五통조림공장	玄承五	한국	9,000	통조림제조업	-	10	10	전복, 소라	1,050	13,650
韓永九통조림공장	韓永九	한국	7,000	통조림제조업	-	6	6	전복, 소라	560	6,360
金瓊煥통조림공장	金瓊煥	한국	5,000	통조림제조업	-	4	4	전복, 소라	480	5,680
高祥鳳조개단추공장	高祥鳳	한국	2,000	조개단추조제	-	12	12	껍질, 단추	2,000	7,000
阿部조개단추공장	阿部延吉	일본	1,000	조개단추조제	-	6	6	껍질, 단추	1,500	5,250
山本조개단추공장	山本喜三郎	일본	3,000	조개단추조제	-	5	5	껍질, 단추	480	1,680
姜興周조개단추조제공장	姜興周	한국	5,000	조개단추조제	-	25	25	껍질, 단추	2,710	9,485
姜興周조개단추연마공장	姜興周	한국	12,000	조개단추연마	2	43	45	껍질, 단추	1,500	4,500
康泰珍조개단추공장	康泰珍	한국	700	조개단추조제	-	6	6	껍질, 단추	880	3,080
金成斗조개단추공장	金成斗	한국	800	조개단추조제	-	8	8	껍질, 단추	960	3,360

공장명	공장주	국적	자본금	공장 종류	연간 노동력			연간 생산액		
					일본	한국	합계	생산품목	수량	금액
康性益조개단추공장	康性益	한국	1,000	조개단추조제	-	20	20	껍질, 단추	1,760	6,160
二宮조개단추공장	二宮義馬	일본	3,000	조개단추조제	-	20	20	껍질, 단추	870	3,045
高見조개단추공장	高見泰治	일본	3,000	조개단추조제	-	21	21	껍질, 단추	900	3,150
福田조개단추공장	福田耕一	일본	2,000	조개단추조제	-	19	19	껍질, 단추	1,700	5,950
黒川소주양조장	黒川程吉	일본	15,000	소주제조업	3	4	7	소주	820	57,400
明月소주양조장	金聖錫	한국	10,000	소주제조업	-	4	4	소주	311	21,770
角표고제조공장	角 健輔	일본	15,000	표고제조업	3	12	15	표고버섯	7,000	22,400
樺島표고제조공장	樺島久治	일본	10,000	표고제조업	2	7	9	표고버섯	2,500	8,000
西郷표고제조공장	西郷武十	일본	10,000	표고제조업	3	11	14	표고버섯	2,700	8,640
河野표고제조공장	河野加三郎	일본	7,000	표고제조업	2	7	9	표고버섯	1,000	3,200
中村표고제조공장	中村鶴松	일본	10,000	표고제조업	1	9	10	표고버섯	3,700	11,840
衛藤표고제조공장	衛藤伊三郎	일본	7,000	표고제조업	2	8	10	표고버섯	3,400	10,880

자료 :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其二, 濟州島』, 1929년.

그 후 1930년도 제주도에는 53개의 공장이 존재하였는데 일본인 공장은 22개, 한국인 공장은 31개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양말제조를 중심으로 통조림, 조개단추粗製(연마), 주조제조 공장 등을 설립한 반면 일본인들은 통조림과 표고제조를 중심으로 설립하면서도 조개단추조제(연마), 주조, 요오드(沃度)제조 공장 등을 연이어 설립하였다. 결국 당시 한국인들은 주로 양말, 양조제조 공장 등을 경영하면서도 제품명이 다양해 지고 규모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1930년 후반에는 외부로부터 공산품들이 대거 수입되면서 제주도 공업이 점차 침체되기 시작했다. 일본인이 제주도 근해에서 어업 활동을 시작하면서 해산물 가공공장이 생겨났고, 육·해산물을 원료로 하는 주조, 제빙, 패구 등의 공장도 생겨났다. 또한 만주사변 이후 군수품의 공출을 목적으로 하는 요오드제조 공장들도 생겨났다⁷⁾.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설립된 제주도 공장의 실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910년부터 1939년까지의 30년간 제주도에 설립된 공장 수는 32개이다. 1910년대 2개에 불과하였으나 1920년대에는 21개가 설립되었으며, 1930년대는 9개로 1920년대에 비해 공장 설립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20개, 일본인 12개로, 그 중에 제주도민은 대부분 소주제조와 소라통조림 등을 생산한 반면 일본인은 요오드제조, 소라통조림 등을 생산하였다. 특히 요오드 제조업은 해조류, 우뭇가사리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요오드 토크 및 요오드 폼 등 의약품 원료를 추출하는 것인데, 일본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요오드 원료 채집이 일본 내에서 어려워지자 제주도로 눈을 돌려 요오드 제조공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한림 7개, 제주, 성산, 구좌 등 4개, 서귀, 애월 등 3개, 이외에 대정, 조천, 표선 등 2개, 안덕 1개로 분포되어 있다⁸⁾. 대부분의 공장 설립 지역은 한림을 중심으로 원재료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항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한림은 성산포, 서귀포와 더불어 가장 큰 항구였다. 특히 일본인이 설립한 공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림과 성산지역에 분포한 이유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제주도를 일찍이 식민지 교두보로 삼고 해산물을 가공하는 각종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1870년대 일본 잠수기업자들이 이미 들어왔고 제주도 남서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이다⁹⁾. 특히 1905년에는 일본인 石原・鈴木 등이 합자하여 한국물산주식회사를 설립해 화학원료로서의 요오드제조 및 멸치잡이 어업 등의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요오드제조에 필요한 감태 채취에 있어서 처음에는 三重縣 志摩의 해녀가 고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제주도 해녀로 전환했다고 한다¹⁰⁾.

7) 진관훈, 앞의 책, 326쪽.

8) 고광명・진관훈(2005), 「일제하 濟州島 회사의 설립과 경영활동」, 『을사조약과 20세기 초의 한반도』, 제4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 자료집, 474쪽.

9) 河原典史(2001), 「植民地期の韓國濟州島における日本人經營の缶詰製造業—竹中缶詰製造所の濟州分工場を中心に」, 『空間と移動の地域地理』, 地域情報研究センター, 205~238쪽.

결국 당시 제주지역의 공장설립은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제주지역의 풍부한 해산물 원료를 가공하기 수월한 주요 항구와 연결한 지역에 많은 공장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장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제조업이나 여타 산업 부분의 경제활동도 아울러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제주도 주요 공장설립 현황(1940년 현재)

공장명	공장주	국적	공장 소재지	설립연월	생산품목
石本통조림공장	石本初右衛門	일본	한림면 한림리	1912년3월	소라통조림
康性통조림공장	康性益	한국	서귀면 서귀리 650	1918년4월	소라통조림
三和양말제조소	張昌希	한국	제주읍 용담리 35	1920년9월	양말제조
太田통조림(주)분공장	太田美之吉	일본	대정면 하모리 1063	1921년4월	소라통조림
太田통조림(주)분공장	太田美之吉	일본	한림면 협재리 1617	1921년4월	소라통조림
玄承五통조림공장	玄承五	한국	성산면 성산리 246	1921년4월	소라통조림
明月소주공장	金滿龍	한국	한림면 용포리 398	1925년4월	소주제조
南昌양말공장	文炳淑	한국	제주읍 도두리 576	1926년2월	양말제조
朝日소주양조공장	朴仁植	한국	구좌면 세화리 2	1926년2월	소주제조
李完律소라통조림 紐貝공장	李完律	한국	애월면 애월리 1741	1926년3월	소라통조림
竹中新太郎통조림공장	竹中新太郎	일본	한림면 용포리 295	1926년3월	肉貝類통조림
廣榮(주)성산요오드공장	下岡守之	일본	성산면 성산리 233	1926년5월	요오드제조
瀾州주조조합	韓保權	한국	조천면 함덕리 1288	1926년6월	소주제조
金泉소주공장	康洪민	한국	구좌면 서김녕리 13	1926년9월	소주제조
裕進소주공장	韓行力	한국	성산면 성산리 178	1926년9월	소주제조
大東양주공장	高容基	한국	애월면 하귀리 1	1927년6월	소주제조
月露소주공장	金文奎	한국	애월면 애월리 1722	1927년6월	소주제조
李道一상점주조소	李道一	한국	대정면 하모리 770	1927년11월	소주제조
南昌양조장	宋權殷	한국	표선면 표선리 666	1928년6월	소주제조
湖南製麵상회	金致休	한국	제주읍 일도리 1275	1928년	면류제조
濟州통조림공장	崔允淳	한국	제주읍 삼도리 1173	1929년2월	소라통조림
下道통조림공장	吳銀浩	한국	구좌면 하도리 1803	1929년5월	소라통조림

- 10) 藤田明良·李善愛·河原典史(2001),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濟州島を中心に」, 『靑丘學術論集』, 第19集, 韓國文化研究振興財団, 117쪽.

공장명	공장주	국적	공장 소재지	설립연월	생산품목
三共酒造조합	姜文玉	한국	서귀면 서귀리 551	1929년9월	소주제조
金鎬民통조림공장	金鎬民	한국	구좌면 서김녕리 981	1930년1월	소라통조림
森下통조림제조공장	森下富太郎	일본	표선면 표선리 864	1930년3월	소라통조림
高祥鳳통조림 및 貝類공장	高祥鳳	한국	조천면 조천리 2689	1932년9월	소라통조림
田口沃度공장	田口嘉一郎	일본	서귀면 서귀리 648	1932년12월	요오드제조
翰林沃度제조공장	竹中新太郎	일본	한림면 동명리 1694	1934년1월	요오드제조
和順제분공장	和田芳松	일본	안덕면 화순리 833	1934년5월	감자전분
福田통조림공장	福田耕一	일본	성산면 성산리 250	1934년6월	소라통조림
濟州島漁業(주)제일제빙공장	有吉京吉	일본	한림면 옹포리 294	1937년1월	제빙업
濟州島제분공장	足立孝一	일본	한림면 동명리 711	1938년11월	감자전분

자료 : 朝鮮總督府殖産局編, 『朝鮮工場名簿』, 1940년판.

III. 일제하 제주도 회사설립 현황

조선실업신용대감(1931)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활동한 29명의 기업가 가운데 한국인은 18명(62%)으로 일본인 11명(38%)에 비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 기업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업종은 잡화와 포목, 미곡 관련 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1910년대에는 일본인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많았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 한국인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간 판매한 매출액은 박종실¹¹⁾이

11) 박종실(1885~1966)은 호는 晴岩으로 1905년 제주최초의 상점인 '朴宗實商店'을 제주면 1도리에 개점하여 상당한 영업성과를 이룩한 근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기업가이다. 그는 1922년 제주상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오랜 숙원사업이던 해운업에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근대기업가로 변신하게 된다. 1922년 제주상선(주), 1924년 제주면업(주), 1925년 제주통운(주), 1928년 제주주조(주), 1934년 난곡면업(주), 1935년 제주상사(주), 1936년 삼일해운(주), 1939년 제주상운(주) 등의 취체역과 1935년 소화운송(주) 감

4만6천8백圓으로 제주도에서는 제1위를 차지하였으나 제2위는 崔允淳¹²⁾으로 4만3천圓, 제3위는 村田嘉藤治¹³⁾으로 4만2천圓이었다. 한편 부동산 등 재산총액을 비교하여 보면 박종실의 소유한 재산총액은 8만5천圓이었으며 최윤순은 4만6천圓, 村田嘉藤治는 5만5천圓이었다. 그 외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3만5천圓에서 6천2백圓에 이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순자산은 박종실이 7만圓, 角健輔¹⁴⁾이 6만5천圓, 최윤순과 石井榮太郎¹⁵⁾이 3만圓을 차지하였다. 신용은 A, B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동업자 지위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하였으나, 지불상태, 業態부분에서는 B급, C급 상태였다¹³⁾.

〈표 4〉에서 보면 당시 제주도에는 7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일본인 회사는 3개사, 한국인 회사는 4개사가 설립되었다. 특히 한국인이 경영활동에 참가한 제주미유조합(1919년)은 자본금이 1만5천3백圓(불입자본금 1만5천3백圓)으로 다른 주식회사에 비해 자본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매출액은 6만圓으로 제주전기주식회사(3만圓), 제주주조주식회사(3만圓)에 비해 2배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신용, 지불, 업태는 A등급으로 다른 6개 주식회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역을 역임하였다. 김찬흡편저, 앞의 책, 233~234쪽.

12) 최윤순은 1925년 제주통운주식회사를 일본인 萩原駒藏¹⁶⁾과 합자회사로 설립하여 제주도내 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삼도리에서 소라통조림공장을 설립·운영하였고 제주상선주식회사(1922), 제주면업주식회사(1924), 제주전기주식회사(1925)의 취체역도 겸직하였다. 제주상공회의소(1991), 『濟州商議五十五年史』, 189쪽.

13) 고광명(2003), 「일제하 濟州島 기업가 연구 : 청암 박종실의 기업가활동」, 제23회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59-72.

〈표 3〉 제주도 기업가별 현황(1931년 현재)

기업가	연령	업종	설립 연월	매출액	부동산	기타 자산	순자산	신용	자본 상태	업태	동업 순위
朴 宗 實	49	식료품, 잡화	1905.8	46,800	45,000	40,000	70,000	A	B	B	1
中村 鶴松	52	표고, 잡화	1905.9	17,000	9,000	15,000	15,000	A	A	B	1
西郷 武十	59	잡화	1906.2	5,500	8,000	2,000	5,000	B	C	C	2
衛藤伊三郎	56	미곡, 표고	1906.4	31,000	10,000	28,000	20,000	A	A	A	1
由口 源藏	48	토지경영	1906.5	13,000	25,000	10,000	-	B	B	C	1
金 時 善	51	통조림, 포목	1906.6	62,000	10,000	12,000	9,000	A	A	B	1
廣瀬千代藏	52	건축, 청부	1908.6	40,000	15,000	5,000	6,000	B	C	C	1
崔 九 淳	45	綿제조, 금화	1909.1	43,000	6,000	40,000	30,000	A	A	A	1
角 健 輔	49	목재, 잡화	1909.2	36,000	30,000	60,000	65,000	A	A	A	1
村田嘉藤治	64	잡화	1909.7	42,000	20,000	35,000	18,000	A	A	C	1
木澤友次郎	67	식료, 잡화	1911.3	17,000	5,000	6,000	8,000	A	A	B	1
金 栽 煥	24	포목	1912.3	7,000	7,000	5,000	8,000	B	B	C	2
白 京 淑	52	포목	1914.1	31,500	18,000	8,500	20,000	B	A	A	1
金 錫 潤	35	장미	1914.3	9,400	2,000	35,000	3,000	B	A	B	2
黃 鐵 益	35	포목	1920.1	10,000	1,200	5,000	3,000	C	B	C	2
李 順 鄉	39	미곡, 당분	1920.2	26,000	4,000	8,000	7,000	B	A	B	1
古賀龜太郎	54	미곡, 잡화	1921.1	18,000	35,000	900	8,000	A	A	B	1
朴 離 麟	60	기와제조, 운수	1921.4	18,000	20,000	15,000	25,000	A	C	C	1
金 己 祚	43	목재	1922.5	30,000	5,000	7,000	6,000	C	C	C	1
文 公 燦	46	포목	1923.2	14,000	5,000	3,500	5,000	B	B	B	1
文 景 玩	51	포목	1923.3	20,000	5,000	3,000	5,000	B	A	B	2
韓 錫 範	51	포목	1923.3	17,000	4,000	5,000	5,000	B	A	C	1
田口象次郎	48	문방구	1923.4	18,000	8,000	7,000	8,000	B	C	C	1
李 允 熙	50	회漕	1924.6	7,000	10,000	25,000	-	B	A	B	1
石井榮太郎	58	吳服, 잡화	1924.7	6,100	10,000	30,000	30,000	A	A	C	1
康 行 杓	51	해산물, 청부	1925.1	5,000	15,000	2,000	-	C	C	C	2
康 芝 洙	42	미곡, 金貨	1925.4	5,000	15,000	10,000	16,000	A	A	C	1
宋 鐘 鉉	31	주류 판매	1926.1	-	18,000	-	-	B	B	C	1
尹 甫 容	40	포목	1926.4	33,000	5,000	8,000	8,000	B	B	B	1

출처 : 岡田寅喜編, 『朝鮮實業信用大鑑』, 1930년.

한편 『朝鮮總督府官報』조사에서는 1931년 현재 기준으로 총 12개 주식회

사가 설립되었다. 이를 회사형태별로 보면 합자회사 2개사(해륙운송, 제주운송), 합명회사 2개사(개발상사, 만길), 주식회사 8개사(제주물산, 제주상선, 제주면업, 제주전기, 제주통운, 제주남부운수, 제주주조, 조선요오드)였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인 5개사, 일본인 4개사, 한일합자 3개사이며, 그 중에 4개사(제주상선, 제주면업, 제주통운, 제주주조)는 박종실이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던 회사였다. 이에 대해 高承濟(1973)는 1930년 말경에 이르러 제주도에는 13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 중 일본인 회사는 1개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한일합자 3개사가 존재했는데 나머지 9개사는 오로지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한국인 회사들이었다. 아울러 일본인이 설립한 1개사는 제주도 한림읍에 설립된 수산회사인 제주도어업주식회사로써 상공업에 대한 일본인 세력은 거의 좌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표 4〉 제주도 주요 회사설립 현황(1931년도 현재)

(단위 : 圓)

법인기업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연월	자본금	불입 자본금	매출액	배당	신용	지분	업태
濟州米油組合	朴宗實	미유판매업	1919.12	15,300	15,300	60,000	30	A	A	A
濟州商船株式會社	金根著	선박운수업	1922.08	150,000	37,000	-	-	B	B	B
濟州綿業株式會社	金根著	면화판매업	1924.10	200,000	50,000	20,000	缺	C	C	C
濟州電氣株式會社	小倉武之助	전등·전력	1925.02	100,000	25,100	30,000	6	C	C	C
濟州通運株式會社	萩原 駿藏	운송업	1925.06	6,000	6,000	-	-	C	C	C
濟州南部運輸株式會社	康性益	자동차운수	1927.03	7,000	7,000	-	-	C	C	C
濟州酒造株式會社	衛藤伊三郎	소주제조업	1928.05	40,000	10,000	30,000	超	B	B	B

출처 : 岡田寅喜編, 『朝鮮實業信用大鑑』, 1930.

이러한 제주도민자본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일제시기 다수의 법인이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때 제주도민들 가운데 유력자본가들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인이 설립한 회

14) 高承濟(1973), 「韓國海運業의 展開와 濟州商船會社의 地位」, 『月刊商議-企業과 企業人의 回顧』, 5월호, 대한상공회의소, 44쪽.

사와 경쟁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설립된 대표적 몇몇 회사를 살펴보면 일제시기 제조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창고업 등 비교적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 설립된 제주도 회사의 실태를 보면 그 특징을 몇 가지 엿볼 수 있다.

『朝鮮總督府官報』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제주도내 설립된 회사는 52개사이다. 1920년대에 8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대에는 18개사, 1940년대 23개사로 회사설립이 증가하였다¹⁵⁾. 자본규모별 현황을 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가속화됨에 따라 회사설립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자본금 10만圓 이하의 회사설립도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자본금이 30만圓 이상의 2개사는 일본인이 설립한 제주도어업(주)과 제주자동차(주)로서 대규모 자본금에 따른 제주인의 회사설립은 없었다. 이에서 보면 당시 제주자본은 규모 면에서 30만圓 미만이 한계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16개사(자본금 총액 1,125,000圓), 운수업 16개사(자본금 총액 970,950圓)가 진출하여 각각 전체의 30.7%를 점하고 있었다. 그 외에 상업에는 전체의 15.3%에 해당하는 8개사(322,000圓)가 진출하였고, 양조업 7개사(558,000圓), 수산업 3개사(302,000圓), 전기기업 1개사(100,000圓), 기타 영화, 연극 1개사(21,000圓) 등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당시 한국인 회사설립에 제주도민의 토착자본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일본인의 회사설립에 비해 12개사 정도 많았지만 자본금에서는 다소 적은 편에 속한다. 당시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주력한 산업분야는 제조업, 운수업, 상업 등이었으며, 특히 한국인은 주조업 분야의 회사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제주자본의 규모나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주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주조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30개사, 일본인 18개사, 한일합자 4개사이며 그 중에 34개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던 회사들이다. 이를 회사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15) 高廣明(2003), 「植民地期における濟州島民會社の設立と發展」, 第4回 現代韓國朝鮮學會發表資料, 5~6쪽.

43개사, 합자회사 4개사, 합명회사 4개사, 유한회사 1개사로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회사의 소멸형태를 보면 해산이 12개사, 합병 1개사, 상호변경 6개사이며, 소멸 시기는 1920년대 1개사, 1930년대 5개사, 1940년대 13개의 회사가 소멸되었다¹⁶⁾. 이러한 제주도민의 중심이 된 회사설립은 식민지체제 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체제에 편입되어 갔다는 점에서 일면 제한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인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제주도 최초의 근대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표 5〉 제주도 회사설립 현황(1910~1945)

회사명	대표자	년도	국적	소재지	영업목적	자본금	소멸시기	소멸형태
(자)해륙운송	김현우	1910	한국	제주군	운송업	450		
제주물산(주)	현기봉 외	1919	한국	제주면	무역, 판매업	2,000		
개발상사(명)	谷 玄造	1919	일본	제주면	해산물매매, 중개업	50,000	1922	해산
제주상선(주)	김응두, 고석종	1922	한국	제주면	해운업, 금전대부업	150,000	1934	해산
만길(명)	김영진	1923	한국	대정면	통조림, 단주제조업	10,000		
제주운송(자)	이윤희	1924	한국	제주면	운송업	10,000	1934	해산
제주면업(주)	김근시, 山口源藏	1924	합자	제주면	면화매매, 가공업	200,000	1943	해산
제주전기(주)	小島武之助	1925	일본	제주면	전기기구 판매업	100,000	1936	합병
(주)제주동운	萩原野藏, 최윤순	1925	합자	제주면	자동차운송업	6,000	1942	해산
제주남부운수(주)	川崎増造, 송문준	1927	합자	우면	자동차운송업	7,000	1942	해산
제주주조(주)	衛藤伊三郎, 角 健輔	1928	일본	제주면	주류제조, 판매업	40,000		
조선요오드(주)	石渡吉治	1930	일본	제주면	요오드제조업			
호남어업(자)	양재룡	1933	한국	제주읍	어업 및 운반업무	2,000	1934	해산
난곡면업(주)	김근시	1934	한국	제주읍	면화매매, 가공업			
(주)제주해운상회	김임길	1935	한국	제주읍	해운업, 무역업	20,000		
제주상사(주)	박종실, 角健輔	1935	합자	제주읍	유통업, 보험업	30,000		
(자)伴商店	角 健輔	1935	일본	제주읍	잡화판매업	30,000	1940	해산
소화운송(주)	김근시	1935	한국	제주읍	운송업	10,000	1942	해산
제주도산소주판매(주)	이동일	1935	한국	제주읍	소주제조업	50,000	1940	해산
남선상사(주)	김영희	1936	한국	제주읍	무역, 창고, 해운업	50,000		

16) 고광명 외(2004), 「식민지기 제주도 법인회사의 설립과 발전전략」, 2004년도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 발표 자료집, 557~581.

회사명	대표자	년도	국적	소재지	영업목적	자본금	소멸시기	소멸형태
삼일해운(주)	김태민	1936	한국	제주읍	해운업	22,500	1939	상호변경
→제주상운(주)	박종일	1939	한국					
제주도어업(주)	有吉京吉	1936	일본	한림면	어업 및 운송업	300,000		
(주)고정봉회조부	고정봉	1937	한국	한림면	화물 및 여객운송업	20,000	1941	상호변경
→(주)竹中組	竹中新太郎	1941	일본					
제주목재(주)	문재석	1938	한국	제주읍	목재판매업	30,000		
제주도해조(주)	양두석	1938	한국	제주읍	해조류판매업	80,000	1940	상호변경
→제주수산(주)	김근시	1940	한국	제주읍	어업, 수산물운송업			
대정농업(주)	김대유	1939	한국	대정면	농산물가공, 판매업	100,000		
제일전분(주)	강성익	1939	한국	서귀면	전분제조업	100,000		
성산주조(명)	한행서	1939	한국	성산면	주류제조, 판매업	28,000	1944	해산
제주도패구(주)	田中晋吉	1940	일본	서귀면	패구제조, 판매업	50,000		
삼공주조(명)	강문옥	1940	한국	서귀면	주류제조, 판매업	40,000	1944	일시해산
제주도산업상사(주)	大村隆行	1940	일본	한림면	농축산물 가공업	50,000		
조선제충국(주)	竹中新太郎	1940	일본	서귀면	제충국매매, 제조업	15,000		
제주산업(주)	竹中新太郎	1941	일본	제주읍	농산물가공, 판매업	100,000	1943	상호변경
→제주산업개발(주)	大同源三郎	1943	일본					
제주도서부통조림(주)	太田富士太郎	1941	일본	대정면	통조림제조업	50,000		
성산통조림(주)	宇野正朗	1941	일본	성산면	통조림제조, 판매업	70,000		
제주통조림(주)	高山固岸	1941	일본	제주읍	통조림제조, 판매업	50,000		
한림운송(유)	李家輝保	1941	일본	한림면	최초류운반업	30,000		
제주도물산(주)	강영효	1941	한국	구좌면	해산물매매, 제조업	100,000	1943	상호변경
→(주)신농상점	강영효	1943	한국	구좌면	선박, 화객운송업		1945	상호변경
→구좌운송(주)	강영효	1945	한국					
홍아상공(주)	황순하	1942	한국	제주읍	해태건조용 제조업	100,000		
조선해면기업(주)	황순하	1942	한국	제주읍	해면정제가공 판매업	180,000		
(주)조일구락부	萩原駒藏	1943	일본	제주읍	영화, 연극	21,000		
제주항운(주)	金山倉久	1943	일본	제주읍	선박, 화객운송업	195,000		
제주자동차(주)	萩原駒藏	1943	일본	제주읍	자동차운수업	500,000		
제주동주조(주)	송권은	1944	한국	성산면	소주제조, 판매업	100,000		
제주술해주조(주)	이도일	1944	한국	애월면	소주제조, 판매업	150,000		
제주남주조(주)	강문옥	1944	한국	서귀면	소주제조, 판매업	150,000		

주1 : (주)=주식회사, (자)=합자회사, (명)=합명회사, (유)=유한회사

주2 : →는 상호변경 회사를 표시함.

자료 :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에서 필자 조사 작성.

IV.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경영활동

1. 남주 강성익의 경영활동

1) 설립 및 경영참여 현황

강성익은 1918년 4월 서귀면 서귀리에 강성익통조림공장을 설립하였다. 동 공장은 자본금 5,000圓으로 시작하여 전복, 소라 등을 제조하였다. 1925년 현재 시점에서 연간 노동력 6명으로 연간 730상자를 생산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8,430圓으로 제주도에서는 일본인을 제외한 한국인이 설립한 현승오통조림공장(자본금 9,000圓, 생산액 1,050상자, 매출액 13,650圓) 다음으로 제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강성익은 같은 시기에 자본금 1,000圓을 투자하여 조개단추를 조제하는 강성익조개단추공장을 설립하였다. 연간 노동력은 20명으로 연간 1,760판을 생산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6,160圓으로 제주도에 제3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1920년 이후 제주도에 조직형태를 가진 회사들이 잇달아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회사들의 대부분은 운수회사이거나 해운회사였다. 그는 1927년에 설립한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의 취체역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근대기업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1927년 3월 4일 우면 서귀리에 자동차 운수업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설립등기는 1927년 3월 15일). 동사는 회사대표 취체역 川崎増造, 宋文準이 자본금 7천圓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운수회사이다. 당시 동사의 1주당 금액은 20圓이고 1주당 불입금액은 7천圓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은 川崎増造, 송문준, 中村鶴松, 四郷武十, 玄承五, 강성익, 金成信 등이며, 감사역은 尾上貞彦, 四本正作, 金文玉, 宋祥五 등이 선임되었다. 그 후 동사는 1942년 7월 30일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해산하기로 결정하여 취체역 강성익

(회사대표 청산인), 吳南一, 康翼孝 등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종결하게 된다(해산등기는 1942년 8월 8일)¹⁷⁾.

이처럼 강성익은 1927년 운송업에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하면서 운수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를 계기로 회사설립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화운송주식회사(1935)를 비롯하여 제일전분주식회사(1939), 제주산업주식회사(1941), 제주자동차주식회사(1943) 등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특히 제일전분주식회사는 1935년 서귀면에 자본금 100,000圓를 단독으로 투자하고 순수한 도민자본에 의해 전분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당시 그가 회사설립 및 경영에 관계한 7개사 중에서 4개사는 1940년대 초반에 해산되거나 상호를 변경한 회사들이다(〈표 6〉참조).

〈표 6〉 강성익의 공장 및 회사설립과 경영참여 현황

(단위 : 圓)

공장 및 회사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년도	자본금	소재지	국적	소멸시기	소멸형태
강성익통조림공장	강성익	통조림제조업	1918	5,000	서귀면	한국		
강성익조개단추공장	강성익	조개단추조제업	1918	1,000	서귀면	한국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	川崎増造, 송문준	자동차운수업	1927	7,000	우면	합자	1942	해산
소화운송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1935	10,000	제주읍	한국	1942	해산
제주도해조주식회사	양두석	해조류판매업	1938	80,000	제주읍	한국	1940	상호변경
제일전분주식회사	강성익	전분제조업	1939	100,000	서귀면	한국		
제주도요리주식회사	田中晋吉	요리제조판매업	1940	50,000	서귀면	일본		
제주산업주식회사	竹中新太郎	농산물가공판매	1941	100,000	제주읍	일본	1943	상호변경
제주자동차주식회사	萩原驥藏	자동차운수업	1943	500,000	제주읍	일본		

출처 : 〈표 5〉와 동일.

17) 《朝鮮總督府官報》1942年9月15日字.

2) 취체역 재직기간

강성익은 1910년대 후반 통조림, 조개단추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대표로서 제주도 제조업 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성익이 회사경영에 참여한 실태를 살펴보면 취체역은 회사설립에 관계된 7개사에서 재직하였다. 취체역의 재직기간은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에서 4회, 소화운송주식회사에서 3회, 제일전분주식회사에서 2회를 역임하였으며, 나머지 4개사에서 1회를 역임하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운수업 3개사, 해조류가공·판매업 2개사, 농산물 가공 및 전분 제조업 각각 1개사로서 이중 대부분을 자동차운수업에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7〉참조). 결국 강성익은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업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 강성익의 취체역 재직기간

(단위 : 圓)

공장 및 회사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년도	자본금	취체역	회수
강성익통조림공장	강성익	통조림제조업	1918	5,000	-	-
강성익조개단추공장	강성익	조개단추제조업	1918	1,000	-	-
제주남부운수주식회사	川崎増造, 송문준	자동차운수업	1927	7,000	1927-1942	4회
소화운송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1935	10,000	1935-1943	3회
제주도해조주식회사	양두석	해조류판매업	1938	80,000	1938-1940	1회
제일전분주식회사	강성익	전분제조업	1939	100,000	1939-1942	2회
제주도패구주식회사	田中實吉	패구제조 판매업	1940	50,000	1940	1회
제주산업주식회사	竹中新太郎	농산물가공 판매업	1941	100,000	1941-1943	1회
제주자동차주식회사	萩原豊藏	자동차운수업	1943	500,000	1943	1회

자료 : 〈표 5〉와 동일.

2. 우공 황순하의 경영활동

1) 설립 및 경영참여 현황

황순하는 1925년 제주면에 대성통조림공장을 설립하였다. 동 공장은 자본금 4,000圓으로 시작하여 전복, 소라 등을 제조하였다. 연간 노동력은 6명으로 연간 470상자를 생산하여 판매한 매출액은 5,520圓으로 제주도에서는 소규모의 공장이었다.

그 후 제주도에서 조직형태를 가진 회사들이 연이어 설립되면서 근대기업으로 변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1922년에 설립한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취체역으로 취임한 이후 기업설립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제주주조주식회사(1928)를 비롯하여 제주도산소주판매주식회사(1935), 조선해면기업주식회사(1942), 제주무해주조주식회사(1944) 등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제주주조주식회사는 1928년 5월 4일 일본인 衛藤伊三郎·角健 輔가 자본금 4만圓(불입자본금 1만圓)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제주면 건입리에 설립된 주조회사이다(설립등기는 1928년 5월 16일). 매출액은 3만圓으로 신용, 지불, 業態는 B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업목적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고 기타 부대사업도 취급하였다. 1주당 금액은 500圓이고 1주당 불입금액은 12圓50錢이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은 衛藤伊三郎·角健 輔, 萩原駒藏, 최윤순, 石井榮太郎, 金根蓍¹⁸⁾, 박종실 등이며, 감사역은 李允熙, 村田嘉藤治이 선임되었다(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만 20년)¹⁹⁾. 그 후 동사는 1935년 5월 15일 지배인 西山淨說를 해임하면서 취

18) 김근시(1875~1956)는 호는 又菊으로 한말의 관리와 일제시대의 사업가이다. 1922년 제주상선주식회사, 1924년 제주면업주식회사, 1928년 제주주조주식회사, 1935년 소화운송주식회사, 1940년 제주수산물주식회사(1939년 제주도해조주식회사를 상호변경)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여러 차례 전남도회 평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김찬흡편저, 앞의 책, 97쪽.

19) 《朝鮮總督府官報》1928年8月24日字.

채역 萩原駒藏를 제외한 취체역과 감사역 西元勝美는 1935년 5월 22일 사임하게 된다. 1935년 5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체역 황순하(회사대표 취체역), 黃鎮秀, 黃清河, 黃巨河, 黃智河 등을 선임하게 된다²⁰⁾. 특히 홍아상공주식회사(자본금 100,000圓), 조선해면기업주식회사(자본금 180,000圓)는 도민자본에 의해 1942년에 설립한 기업들이다. 당시 회사설립 및 경영에 관계한 9개사 중에서 4개사는 1930년 중반에서 1940년 초에 해산되거나 상호를 변경한 회사들이다(<표 8>참조).

<표 8> 황순하의 공장 및 회사설립과 경영참여 현황

(단위 : 圓)

공장 및 회사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자본금	소재지	국적	소멸시기	소멸형태
대성통조림공장	황순하	통조림제조업	1925	4,000	제주면	한국		
제주상선주식회사	김응두, 고석중	해운업	1922	150,000	제주면	한국	1934	해산
제주주조주식회사	衛藤伊三郎, 角健輔	소주제조업	1928	40,000	제주면	일본		
제주도산소주판매(주)	이도일	소주제조 판매업	1935	50,000	제주읍	한국	1940	해산
제주도해조주식회사	양두석	해조류판매업	1938	80,000	제주읍	한국	1940	상호변경
제주도물산주식회사	강영효	해륙산물제조업	1941	100,000	구좌면	한국	1943	상호변경
홍아상공주식회사	황순하	해태건조발제조업	1942	100,000	제주읍	한국		
조선해면기업주식회사	황순하	해면가공 판매업	1942	180,000	제주읍	한국		
조일구락부주식회사	萩原駒藏	영화, 연극	1943	21,000	제주읍	일본		
제주무해주조주식회사	이도일	소주제조업	1944	150,000	애월면	한국		

자료 : <표 5>와 동일.

2) 취체역 재직기간

황순하는 1925년 제주면에 대성통조림공장을 설립하여 공장대표로서 제주도 제조업 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황순하의 경영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취체역은 회사설립에 관계된 9개사에서 재직하였다. 취체

20) 《朝鮮總督府官報》1935年7月13日字.

역의 재직기간은 제주주조주식회사에서 4회, 제주도산소주판매주식회사에서 2회를 역임하였으며, 나머지 7개사에서 1회를 역임하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해조류가공·판매업 4개사, 소주제조업 3개사, 해운업 1개사, 영화·연극 1개사로서 이중 대부분을 해조류가공 판매업과 소주제조업에서 재직하였다(〈표 9〉참조). 결국 황순하는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해조류제조업과 소주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9〉 황순하의 취체역 재직기간

(단위 : 圓)

공장 및 회사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자본금	취체역	회수
대성통조림공장	황순하	통조림제조업	1925	4,000	-	-
제주상선주식회사	김응두, 고석종	해운업	1922	150,000	1922-1924	1
제주주조주식회사	衛藤伊三郎, 角 健輔	소주제조업	1928	40,000	1935-1940	4
제주도산소주판매(주)	이도일	소주제조업	1935	50,000	1935-1940	2
제주도해조주식회사	양두석	해조류판매업	1938	80,000	1938-1940	1
제주도물산주식회사	강영효	해륙산물제조업	1941	100,000	1942-1943	1
홍아상공주식회사	황순하	해태건조발제조업	1942	100,000	1942	1
조선해면기업주식회사	황순하	해면가공 판매업	1942	180,000	1942	1
조일구락부주식회사	萩原野藏	영화, 연극	1943	21,000	1943	1
제주무해주조주식회사	이도일	소주제조 판매업	1944	150,000	1944	1

출처 : 〈표 5〉와 동일.

3. 기업가별 영업세 납부실적

일제하 제주도내 기업가들의 영업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제주도내 기업가별 납세기록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제주도에서 지역별 영업세(본세) 7圓 이상 납부자는 제주읍 281명

(개인 266, 법인 15), 한림읍 147명(개인 143, 법인 4), 애월면 40명(개인), 조천면 53명(개인 32, 법인 19)으로 총 468명이었다. 지역별로 납부 금액을 보면 전체 20,743圓87錢 중에서 제주읍 12,383圓19錢(개인 10,281圓54錢, 법인 2,101圓65錢), 한림읍 6,496圓52錢(개인 5,304圓, 법인 1,192圓52錢), 애월면 985圓(개인), 조천면 876圓16錢으로 제주읍이 50% 이상 납부하였다²¹⁾.

법인회사별 영업세는 제주상사주식회사(490圓56錢), 제주통운주식회사(369圓92錢), 제주상운주식회사(139圓54錢), 제주주조주식회사(118圓12錢) 순으로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성익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1개의 회사 영업세 98圓63錢(6.36%)과 1개사의 건적액 100圓을 납부하였다. 황순하는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1개의 회사 영업세 118圓12錢(7.6%)와 2개사의 건적액 200圓을 납부하였다. 이 외의 제주도 기업가로 박종실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6개의 회사를 포함한 총 1,307圓13錢(84.2%)을 납부함으로써 개별기업가로는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²²⁾. 한편 일본인 기업가로 제주도내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한 竹中新太郎은 제주읍내 회사 전체 건적액 550圓 중에서 1개의 회사 건적액 100圓과 한림읍내 1개사의 회사 영업세 92.52圓(100%)을 납부하였다²³⁾. 이러한 영업세 납부실적으로 보더라도 강성익과 황순하는 제주경제의 실권을 장악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했으며 기업가로서 나름대로의 기업이념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1) 濟州商工會(1940),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12쪽.

22) 고광명·진관훈(2005), 「제주도 기업가 晴岩 朴宗實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3-31.

23) 고광명·진관훈, 앞의 책, 479쪽.

〈표 10〉 제주, 한림읍 법인회사 영업세 납부실적

(단위 : 원)

회사 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년도	자본금	국적	영업세	건적액
제주면업주식회사	김근시, 山口源藏	면화판매업	1924	200,000	한일	90.36	
제주통운주식회사	萩原豊藏, 최윤순	운송업	1925	6,000	한일	369.92	
제주주조주식회사	衛藤伊三郎, 角 健輔	소주제조업	1928	40,000	일본	118.12	
제주해운주식회사	김임길	해운업	1935	20,000	한국	21.64	
제주상사주식회사	박종실, 角 健輔	유통업	1935	30,000	한일	490.56	
주식회사件商店	角 健輔	잡화판매업	1935	30,000	일본	108.14	
소화운송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1935	10,000	한국	98.63	
남선상사주식회사	김영희	무역업	1936	50,000	한국	31.66	
제주상운주식회사	박종실	해운업	1939	22,500	한국	139.54	
제주목재주식회사	문재석	목재판매업	1938	30,000	한국	83.08	
제주수산물주식회사	김근시	수산물판매업	1940	80,000	한국		100.00
제주산업주식회사	竹中新太郎	농산물가공업	1941	100,000	일본		100.00
제주통조림주식회사	高山固岸	통조림제조업	1941	50,000	일본		150.00
제주홍아상공주식회사	황순하	해태건조업	1942	100,000	한국		100.00
조선해면기업주식회사	황순하	해면정제업	1942	180,000	한국		100.00
제주읍 계(15명)						1,551.65	550.00
제주도어업주식회사	有吉京吉	운송업	1936	300,000	일본		1,000.00
고정봉회조부주식회사	고정봉	화물여객업	1937	20,000	한국		100.00
竹中組주식회사	竹中新太郎	화물여객업	1941	20,000	일본	92.52	
제주도산업상사주식회사	大村隆行	육해산가공업	1940	50,000	일본		
한림읍 계(4명)						92.52	1,100.00
총계(19명)						1,644.17	1,650.00

자료 : 濟州商工會,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1940년.

V. 맺음말

이 연구는 일제식민지기 제주도에 본점을 둔 공장 및 회사 설립을 대상으로 기업가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제주자본의 성격과 특질을 해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에 대한 제주도 기업가별 경영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공장설립은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제주지역의 풍부한 해산물 원료를 가공하기 수월한 주요 항구와 연결한 지역에 많은 공장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제주도민의 중심이 된 회사 설립은 식민지체제 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체제에 편입되어 갔다는 점에서 일면 제한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인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제주도 최초의 근대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진다. 셋째, 강성익은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송업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황순하는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해조류와 소주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박종실은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기보다는 해운업을 통해 무역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竹中新太郎은 일제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각종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자원생산에 많은 비중을 가졌다고 보여 진다.

이상에서 볼 때 일본 식민지기 제주도에 설립되었던 공장 및 회사의 자본은 일인자본(日人資本)에 비해 자본 경쟁력이 열위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성격이 매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당시 제주경제는 많은 경제적 변동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고광명(2003), 「일제하 濟州島 기업가 연구 : 청암 박종실의 기업가활동」, 제23회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59-72.
- 고광명 외(2004), 「식민지기 제주도 법인회사의 설립과 발전전략」, 2004년도 대한 경영학회 추계학술 발표 자료집, 557-581.
- 고광명·진관훈(2005), 「일제하 濟州島 회사의 설립과 경영활동」, 제4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 자료집, 473-479.
- 고광명(2005),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 사례연구-남주 강성익과 우공 황순하의 경영활동」, 제24회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71-84.
- 고광명·진관훈(2005), 「제주도 기업가 晴岩 朴宗實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3-31.
- 高承濟(1973), 「韓國海運業의 展開와 濟州商船會社의 地位」, 『月刊商議-企業과 企業人의 回顧』, 5월호, 대한상공회의소, 44쪽.
- 高禎鍾(1930), 『濟州島便覽』.
- 金榮治編著(2000),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 濟州商工會(1940),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 제주상공회의소(1991), 『濟州商議五十五年史』.
- 朝鮮總督府(1929), 『生活狀態調査 基二, 濟州島』.
- 朝鮮總督府(각 년도),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
- 朝鮮總督府殖産局編(1940), 『朝鮮工場名簿』.
- 진관훈(1999), 「식민지기 제주도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21-143.
-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 岡田寅喜編(1931), 『朝鮮實業信用大鑑』, 日本興信所京城支所.
- 高廣明(2003), 「植民地期における濟州島民會社の設立と發展」, 第4回 現代韓國朝鮮學會發表資料, 5~6쪽.
- 河原典史(2001), 「植民地期の韓國濟州島における日本人經營の缶詰製造業-竹中缶詰製造所の濟州分工場を中心に」, 『空間と移動の地域地理』, 地域情報研究センター, 205~238쪽.

藤田明良・李善愛・河原典史(2001), 「島嶼から見た朝鮮半島と他地域の交流—濟州島を中心に」、『青丘學術論集』、第19集、韓國文化研究振興財団、110-130.

2005년 4월 30일 접수
2005년 6월 10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 필

A Study on the Factory Corporati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ctivities of Jejudo Entrepreneur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Focused on the Kang Sung-Ik and Hwang Soon-Ha-

Ko, Kwang-Myong*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Kang Sung-Ik and Hwang Soon-Ha, who was two of the most well-known modern business man and contributed toward the Jejudo transportation and brewing industry, and the modern economy formation of Jejudo by means of the local capital rather than the non-Jeju capital.

Kang Sung-Ik and Hwang Soon-Ha economic activities for over 50 years was a important research data for Jeju's modern enterprises as well as its entrepreneurs. That company became a important driving force to economic growth of Jejudo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influenced on another modern company of Jejudo and its expansion. And Jejudo entrepreneur accumulated his wealth by modern company, and then he contributed his money to local community and showed ethical business of social-oriented or community-based entrepreneurship by oneself.

Key words : factory, company, Jeju economy, entrepreneur, Jeju capital

* Special researcher of Tourism Economy & Commerce Institute in CNU.